

미얀마 환율 제도 및 최근 동향

(2014. 11.)

양곤사무소

1. 환율 제도 개요

- 미얀마는 '12년 3월까지 공식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, 공식환율, 정부공인환율, 시장환율 등을 혼용하는 다중환율구조(multi-layered exchange rate regime) 보유

- 공식환율 : 정부 통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공식 환율(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한 '97년 이후 사용)
- 공정환율 : 미얀마 정부가 시장환율과 타협해 정부 지정 환전소에서 운용하는 환율로, 수출관세, 수입관세 및 상업세 산정 등에 사용
- 시장환율 : 암시장(black market)에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로 일상 생활에서 실제 통용되는 환율

- 복잡한 다중환율구조는 경제 전반에 왜곡현상을 초래하여, 무역 및 외국인투자 저해와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 - 수출입 및 투자 등 해외 거래에 적용되는 공식환율과 정부공인환율이 실제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외국기업의 미얀마 경제에 대한 불신 가중
 - * 예) '12년 초, 달러당 시장환율(820)이 공식환율(6.4)의 125배 이상
 - 또한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이 천연가스, 보석 등의 자원 판매대금을 국고에 납부 시,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미얀마 차트화로 입금함에 따라 시장환율과 공식환율 차이만큼을 판매자가 이익착복함에 따라 정부가 부정부패를 암묵적으로 용인

□ 국제 자본거래와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'12년 4월 관리변동환율제(managed floating exchange) 도입

○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비공식 외환시장을 제거하고 기존의 복잡한 환율시스템을 통합(환율 단일화)함으로써 외환 및 금융시장 육성, 무역과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을 도모

- 시장환율제도 및 공식환전소 허가, 민간은행에 달러계좌 개설 허용('12년 4월), 외환부족에 따라 달러를 대신하도록 도입된 환전증명서(Foreign Exchange Certificate)제도 폐지('13년 7월)

▪ 환율 결정구조 : 중앙은행(CBM : Central Bank of Myanmar)이 주관하는 입찰시장에서 매일 기준 환율 산정 → 일중 은행간 거래시장 운영 → 각 은행은 중앙은행 고시환율에 $\pm 0.8\%$ 스프레드 적용

2. 환율 동향

□ '14. 9월 하순 이후 주요 통화에 대한 차트 약세 가속화

○ 미얀마 중앙은행의 10월 29일 기준 참고 환율이 달러당 1006차트를 기록하였는 바, 달러당 환율이 1000차트를 돌파한 것은 '12년 4월 관리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처음

* 10월 27일 기준 유로당 1,277짜트, 싱가포르달러당 791차트

<최근 1년간 미얀마 환율 추이>



* 자료 : XE

□ 미얀마 무역적자 확대가 차트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

- 서방의 수입 금제 해제 등 수출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, 자본재 수입 증가 및 외국산 생필품 수입 증가 요인에 의한 수입 증가 폭이 더 커,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
-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일에 달러당 819짜트로 시작 후 '12년 6월에 884짜트, '13년 6월에 980짜트까지 두 차례 환율이 급등한 바 있으며, 무역적자폭의 확대가 주요 요인임

<미얀마 무역수지 동향>

(백만불)

	'12-'13	'13-'14	'14-'15(p)				
				4월	5월	6월	7월(p)
수출(A)	8,977	11,204	3,385	537	997	892	959
수입(B)	9,069	13,760	5,152	1,176	1,311	1,298	1,366
수지(A-B)	-92	-2,556	-1,767	-640	-314	-407	-407

* 자료 : 국가기획경제개발부

□ 환율 상승 추세는 환율 제도 개편 이후 시장 균형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

- 미얀마는 경제 개방 초기 단계로,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필요
- 현재는 시장 균형점을 찾아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바, IMF, EIU 등은 내년도 환율을 달러당 1,000~1,020 짜트 수준으로 전망